

부활 제 5 주일

기도서 296 면(B해)
 제1독서 : 사 도 9, 26-31
 제2독서 : 1 요한 3, 18-24
 복 음 : 요 한 15, 1-8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 5)

□ 강론



해서는 안된다

서 용 복 신부

요사이 우리네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매일 하는 말은 “해서는 안된다” “하지 말아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떠한 가정에서나 하루에 이 말을 쓰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특히 어머니는 어린이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어린이가 흠장난을 하면 옷이 더러워진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칼을 가지고 놀면 위험하다고 하여 안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면 안된다”하므로 어린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하고.

실로 이것은 많은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공자의, 소위 “하지 말라”는 말이 금언처럼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린이에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처럼 나쁜 인상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는 입만 열면 나쁜 장난해서는 안된다, 떠들어대면 안된다, 영화구경 가면 안된다, 집안에서 뛰놀면 안된다, 전자오락실에 가면 안된다는 말만으로 압박을 가한 결과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해서는 안된다는 소극적인 말을 하지 말고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함이 옳은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에게서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마태 7, 12).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마태 19 : 14)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시지 말라든가 보지 말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강하게 약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어린이들을 잘 되게 하는 길이므로 좋은 일을 하라고 합시다.

(여산 주임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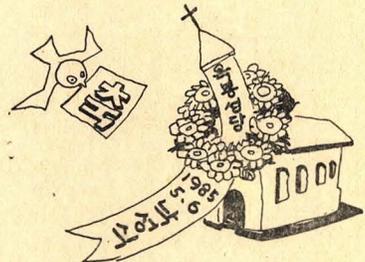


2천 3백 10원

—초임 일당 유감

1. 서울 구로공단내 의류 수출업체인 대우 어페럴의 생산직 근로자 3백여명이 농성을 벌였다고 한다. (4월 26일 화오 6시—다음날 오후 3시경 자진 해산) 이들은 ① 초임 일당 2천3백10원을 3천3백90원으로 40% 인상해줄 것과, ②지난 10일 해고된 노조원(소위 위장취업한 운동권 학생)의 복직을 요구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회사는 지난해에 23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2. 한국 노동자 복지 협의회는 작년말 기준의 여자 1인 최저생계비를 16만7천6백73원으로 조사 발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옛장수 맘대로 선심쓰듯” 월 10만원이라고 매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적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의 90% 정도의 임금인 5천원을 8시간 기준하여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3. “할머니, 과수원에 갔다 오세요?” “아니, 발매고와.” / “얼마나 받으셨어요?” “4천원 받았어.”—어느 날 오후 시내버스 안에서 만난 70가까이 되어 보이는 할머니 두 분과의 대화 내용이다. 문득 버려질 생각이 났다. 2천3백10원의 일당을 받는 근로자들도 생각이 났다. —할머니의 아들이 아픈가? 손자에게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미를 잡았을까? 할머니는 위장취업이 아니라서 품삯이 높은가? 그들은 어떻게 살아 가는가? 근로자들은 버스포 두 장 값이 필요하니 결국 일당은 2천1백30원이구나. 할머니들은 버স্য요금은 안내니 다행이구나.
4. 최저임금이란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신문도 보고, 책도 한 두 권 사보고, 한달에 돼지고기도 한 두 번 맛보고, 적당한 옷을 입고 사는 등—의 임금을 말한단다.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모범이신 성요셉 축일이다. 근로자, 그들은 남이 아닌 우리의 형제다.

숲 정 이 산책



은총 많이 받으시요



나는 착한 목자이다 요한10:11

「에고·에이미」(나는...이다)의 표현은 요한복음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35)는 표현이 그것이다.

「에고·에이미」는 회답말로는 아주 강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내포하고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이라는 것(에고·에이미)을 믿지 않으면 죄에서 헤어날지 못한 채 죽고 말 것이다」(요한 8:24). 예수가 「에고·에이미」라고 한것은 성부와 같은 존재(아인싸인), 성부와 같은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구원 경륜, 구원역사(役事)가 들어 있는 것이다. 또한 「에고·에이미」속에는 요구, 약속, 단죄가 들어 있다. 이 세 요소는 한마디로 「신앙」(요한 3:36)에 요약된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①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15절): 이것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계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평화의 하느님이십니다」(히브 13:20). ②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법이다 (16절). 여기서 일러지는 「음성」은 글자화된 말씀을 말한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양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양들이 얼마나 있는가?

③양들은 목자를 안다(14절). 이것은 목자와 양 간의 친밀성을 말하는 내용인데, 양자의 관계는 사변적인 인식의 관계가 아니고, 애정적인 친밀한 관계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고전 8:3). 「안다」는 동사는 「체휼적인 말」로써 「하느님 애정의 열매」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 어머니님, 기쁘시죠! *****

이토록 만수하시고 무강하시어 이 날을 기쁘게 맞이하신 어머니께 하느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삼가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그 곱디 고우시던 얼굴에 주름이 한결 더 켜 하군요. 골골이 깊어진 주름속에 한 닢던 세상의 회한도 깊었군요. 그 마디 마디 거칠어진 손등은 누구를 위했던 거칠음입니까? 자식들 키우시라 땀흘려 갈아치던 그 진 자리 마른자리 같았던 삶은 또 어때매입니까? 우리 자식들은 압니다. 그런 걱정의 시절, 그저 담담하게 웃음으로 흘리시고 속마음으로만 애태우시던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 자식들은 압니다. 어느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손끝아리는 아픔이 자식 걱정으로 아려보고, 고울세라 미울세라 곱게 키우시던 자식이 훌륭한 사제가 되라고 그저 한 마음, 한 염원을 자식의 뒷 모습만 바라보면서 애태웠을 거예요. 아예 장가를 보내고 이쁜 며느리 손길에 자식을 맡기면 한숨이라도 덜 쉬게 될것을, 땀두꺼비 같은 손자라도 덜커 안겨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어머니님 보세요. 당신이 아끼던 자식을 하느님께 봉헌하셨기에 이제 자식이 이제까지의 당신 한 생의 삶의 모두를 모아 오히려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봉헌하신 아들의 그 축복된 사제의 몸으로써 말합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참 고우시네요.

기억나시나요. 벌써 8년전이 됐습니다. 행여 보따리 싸들고 쫓겨오지않나, 저보다 더 마음 조리시던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신학교 생활을 마치고 티없는 당신의 길 노래하며 걸오리다—, 하며 제대앞에 었디어 평생을 사제의 길을 결심하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어렸답니다.

보세요,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사제가 되어 당신 손수 수 놓아 지어주신 제의를 입고 이렇게 당신의 생애에 대한 감사를 하느님께 봉헌하지 않아요.

부디 오늘 이 미사로 내려지는 하느님의 크신 축복 한껏 받으셔서 남은 생애 더욱 건강하시고 복되시길 이 아들은 기도합니다. 더욱 건강하소서.

—어머님 회갑일에—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정기 특설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복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
서울 주 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개업 1주년 및 사세확장 기념 사은 대특매
기간: 4. 28~5. 27
사은품 증정 ①나이키 신발 ②나이키 등산복
③나이키 스포츠웨어
④파카 크리스탈잔 세트
⑤냉장고용 삼단 팩
삼성전자 중부 대리점
중앙시장 육교 옆(4-4314, 74-5161)
김(빈첸시오)·윤(엘리사벳)



□ “꼭, 이겨야지요……”

호남 성직자 체육대회가 다시 열린다.
 그동안 매년 5월 이때쯤엔 광주교구 사제들과 본 교구 사제들의 체육대회가 열려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져왔던 한 마당, -그러나 광주사태 이후 그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했다가 금년부터 새롭게 마련된 것,
 오는 5월 8일 광주교구 초청으로 광주 가톨릭 대학 교정에서 펼쳐질 이 모임은 우선 양 교구 주교님과 총대리가 한 조가 되어 복식 테니스 게임으로 시작해서, 노사제들의 족구와 7개팀의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특별 게임으로 양팀 25명씩 선수에 3개의 불로하는 축구게임이 국내 최초로 선보일 예정인데, 이 진기명기는 가히 불만한 묘기 대행진 이 될 것을 예상, -벌써부터 작전 짜기에 부심하고 있다.
 교구 선수단 총감독(?)이신 김영신 신부는(교구 사제 친목회장) 감춰둔 비밀작전을 무기로 우승은 우리것이라고 손가락을 브이자로 펴 보이지만, 글썄요, 불 세계를 다 어떻게 막을지- 그 작전이 자못 궁금.
 교구 8만 신자들이 지켜볼 이번 대회에 우승기를 꼭 가져오리라 “빈습니다!” 신자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기대한다.

□ 시집 장가 가던 날

매월 세계 수요일을 우정의 날로 정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왔던 상관 본당에 지난 수요일은 새 장가 시집 가는 진풍경으로 흐뭇했는데……
 결혼 8년에서 54주년을 맞은 구(舊) 신랑 신부들의 부끄러워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욱 다정한 부부애를 보여줬다고,
 지난 수요일 혼인성사 갱신식을 가진 17쌍의 부부들이 하느님의 축복속에 부부서약을 새롭게 한 것- 그동안의 부부생활을 되돌아 보고 서로가 용서와 화해안에서 부부로서의 앞날의 행복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한 이날은 그야말로 새 장가 시집가는 잔치날 이 되었다고-
 특히 이날에 초청된 외곽교우 부부들에게 혼인성사의 축복과 은총을 새롭게 함으로써 전교에도 큰 보탬을 한 셈,
 이 흐뭇한 모습을 지켜 본 다른 교우들 역시, 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며 다음 기회엔 꼭 참여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함께 축하드리며, 그 때 그 마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잊지 말기를……,

□ 순정이 명상

부 모 - 자 식

옛부터 인륜(人倫)을 천륜(天倫)이라 했다. 부모께 드리는 효성은 곧 하느님의 뜻이고 부모와 자식간의 인연은 하느님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이다.
 공자 역시 참된 인간이라면 삼강오륜에 따라 분수와 도리에 맞게 살되 그중에서 부모에 대한 효를 인륜의 으뜸으로 보았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그중에서도 가슴 뜨겁한 말씀은 “아버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름해진다”(에제키엘 18 : 2)는 성서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오늘에 와서 그토록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는 이유가 뭘까? 누구말대로 그만큼 부모 노릇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식 노릇하기도 어려워진 시대라서 그런가! 부모가 자기의 피붙이요, 자기의 살붙이인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이 피와 살을 나눠준, 아니 생명을 나눠준 부모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시대는 가슴 아프다.
 어린이 날이다. 어버이 날이다. 매년 이맘때쯤의 정기적인 날로 맞이하지만 진정한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제 따스한 5월만큼이나 서로의 사랑이 따스했으면 좋겠다.
 눈부신 5월의 태양만큼이나 그 사랑의 빛이 눈부셨으면 좋겠다.
 다시 맞는 어린이 날, 어버이 날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성을 깊이 확인하는 날이 되자.

요심이 (613)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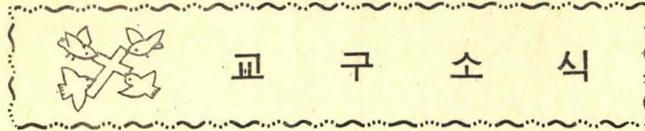
토탈패션 바로방
 * 숙녀 의류 · 악세사리
 교우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경 자(소피아)
 전주백화점,
 진천미꽃집 건너편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학원생 수시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 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데라사(금순)
 ☎ ① 9206 · ③ 5289

우수 분료 설계 · 시공 · 감리
유성정화조
 f.R.P, P.E 정화조
 생산판매
 Water Tank 생산판매
 농촌 삼조식 생산판매
 전주시 전라중학교 앞
 ☎ 74-4880
 김 세 인(이나시오)

고려안경원
 중앙성당 정문 옆 시내버스 정류장
 전화 72-5770
 김 흥 균(베드로)



1. 축! 옥봉성당 축성식 : 5월 6일(월) 오전 11시
2. 축! 견진 : 고산 천주교회, 5월 12일 오전 10시30분, 주례-박정일 주교님
3. 군중 후원회 웰레미사 : 5월 6일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성당
4. 사제 평의회 : 5월 7일(화) 오전 10시30분
5. 재정 참사회 : 5월 7일(화) 오후 2시
6. 성직자 친선 체육대회(전남북) : 5월 8일, 장소-광주 가톨릭신학대학
7. 축! 무주 실천공소 성전 기공식 : 5월 9일 오후 3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8. M.E 전주교구 9차 주말강습 : 5월 10일~12일, 장소-대전신협 연수원
9. 성소자 모임(고·대·일반) : 5월 19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10. 여성 제19차 꾸르실료 : 5월 24일~27일, 신청마감일-14일까지
※ 희망자는 본당신부님께 상의 바람
11. 제 8기 예비자반 모집 : 개강-5월 31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접수처-교구청 교육국(☎ 0041~3)
12. 교리교사 각 분당 회장, 지구 임원, 교구 임원 5월 모임
5월 13일 오후 6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13. 전주교구 레지오 창설 30주년 경축대회 개최
일시-5월 27일(월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장소-전주 실내체육관,
참석대상-각 분당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전원
14. 4지구 교리교사 웰레회 : 일시-5월 5일 오후 2시30분, 장소-부안성당
15. 여자 수도 성소 피점 : 주제-나를 부르소서, 일시-5월 11일~12일(토요일 오후 4시 등록),
대상-여교 1년이상·대·일반여성,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4천원,
지침물-세면도구·필기도구·미사도구(성경)
빛을 향하여 나가는 삶에, 더욱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639-3

주임신부 성 민 호
보좌신부 한 정 현
사도회장 김 인 협

중 앙 천 주 교 회

사 제 관 ☎ 1 7 1 3
수 녀 원 ☎ 1 7 1 2
사 무 실 ☎ 1 7 1 1

☆ 미사시간

일요일 : 오전 6시·9시-학생, 오전 10시30분-공식
오후 3시-어린이, 7시-오후
월요일 : 오전 6시, 화~목요일-오전 6시·오후 7시
금요일 : 오전 10시30분-어머니·오후 7시
토요일-오전 6시, 오후 7시-특전

☆ 예비자 교리(9월반)

일반인 : 목-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 30분
지성인 : 일-오후 8시, 노인 : 금-오전 9시
직장인 : 토-오후 7시30분, 학생 : 토-오후 5시

☆ 반미사 안내(오후 8시30분)

6일-1반, 장소-오재회 ☎3690(구 1·2반, 교사동)
9일-2반, 장소-양형태 ☎7907(구 3·4반, 경원동)

1. 주임신부님 영명축하식 : 금일 공식미사 후
2. 견진안내 : 교리-21일~24일 저녁미사 후
견진-26일(성신강림대축일 공식미사 중)
대상-만 18세이상 영세후 1년 경과자
신청-다음주(12일)까지

3. 반(구역)장 임명(성당 구역도 참조)

1반-장남수(☎6094), 2반-허용자(☎6674)
3반-백인순(☎5712), 4반-이순업(☎0231)
5반-홍기엽(☎0216), 6반-허갑조(☎0151)
7반-홍후자(72-5422), 8반-정진수(☎7279)
9반-김성자(☎2465), 10반-김형자(☎0434)
11반-이영희(☎4874), 12반-최경숙(☎7979)
13반-이은님(☎0591), 14반-고영순(☎2235)
15반-정계순(☎5080), 16반-전순복(☎2212)

신자들은 구역도를 보고 반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4. 분당 버스 구입 : 성모유치원 원아 통학 및 신자들의 성지순례를 위해 버스를 구입하였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병자방문 : 7일 오후 2시(사무실 접수)

6. 금주행사 : 사도회-금일 공식미사 후
상지회-8일 오후 7시30분
반장회합-10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다음주 오후 2시

7. 특별헌금 : 이경노·허은수-2만원

□ 지난주 봉헌금 : 913, 935원 교무금 : 498, 000원
성소주일헌금 : 341, 965원